

## 간호학생의 카데바 실습 경험에 대한 융합적 연구

이현정<sup>1</sup>, 이상복<sup>2\*</sup>

<sup>1</sup>경동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sup>2</sup>경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A Convergence Study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Cadaver Practice

Hyun-Jung Lee<sup>1</sup>, Sang-bok Lee<sup>2\*</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카데바 실습 경험을 확인하여 간호학과 맞춤형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생명·간호 윤리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40명을 대상으로 4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 통해 도출된 자료를, Colaizzi 분석방법으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간호학생의 인체 해부 관찰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3개 범주와 6개의 주제모음 및 1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각 범주별 주제모음은 다음과 같다: 불안(걱정, 직면), 성찰(삶과 죽음의 경계선, 시신스승의 가르침), 성장(전진, 다시없을 값진 경험). 간호학생은 카데바 실습 경험으로 인체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죽음 또한 넓은 의미에서 생명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며 기증을 통한 이타적인 삶도 고민해보는 기회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카데바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감정 대처법 제시, 가상 죽음체험과 같은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과 죽음, 인간의 존엄성에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간호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융합, 간호학생, 카데바, 경험, 포커스 그룹, 인터뷰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of 4 teams of 40 nursing student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cadaver practice programs and life and nursing ethics education by identifying the anatomical observation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through cadaver. We tried to grasp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anatomical observation experience using the Colaizzi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3 categories, 6 theme clusters, and 12 themes were derived. The theme clusters for each category are as follows: Unrest (worry, confrontation), reflection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teaching of the body teacher), growth (step forward, a valuable experience that will never be again). It was an opportunity for nursing students to realize the mystery of the human body and the preciousness of life through the experience of cadaver, and to consider the altruistic life through donation while recognizing that death is also a process of life in a broad sense.

**Key Words** : Convergence, Nursing student, Cadaver, Experience, Focus group, interview

\*Corresponding Author : Sang-bok Lee(lee2000sb@kduniv.ac.kr)

Received June 26, 2020

Revised August 5, 2020

Accepted August 20, 2020

Published August 28,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과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본주의 과학으로 인간의 총체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인간을 생물학적, 심리적, 영적 차원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간호를 의미한다[1].

인체 해부학은 인체의 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의학과 간호학뿐만 아니라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보건과학분야의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간호학의 기초가 되는 전공기초 교과목인 해부학은 대개 1학년이나 2학년에 접하게 된다.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해부학 이론 강의와 그에 따라 인체를 실제로 해부하여 관찰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학생들은 교과서와 그림, 인체 모형 활용 등의 이론 위주의 해부학수업에서 흥미를 잃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2]. 또한 해부학이 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과목임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방대하여 이해하고 외우기가 어렵다는 선입견도 가지고 있다[3].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 기반의 영상제작, 시뮬레이션 기술 등의 디지털 융복합 교육매체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교수학습방법 도입이 항상 최상의 교육목표 달성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고의 효과적인 교육은 해부학 이론 수업과 병행한 카데바(Cadaver) 실습일 것이다[2]. 카데바 실습은 인체를 실제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어 각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일부 간호대학은 국내의 의과대학 해부학교실과 연계하여 카데바 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가 부족한 실정으로 각 간호대학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실습시수와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다[4,5].

카데바 실습에 대한 질적연구를 살펴보면 의대생의 해부학 교육 경험을 면담하여 분석한 연구[6], 간호학생의 카데바 실습 경험에 대한 포커스 인터뷰 연구[7,8], 간호학생의 카데바 실습일지 내용분석[9,10] 등이 소수 있다. 또한 간호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의 카데바 실습 시간은 4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다양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카데바 실습환경과 프로그램에서의 실습 경험에 대해 반복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3학년에 투입되는 임상실습에서 임종환자를 접하기 이전에 카데바를 통해 죽음을 최초로 접하게 되는 간호학생은 생

명과 죽음, 인간 존엄성, 시신이나 장기기증과 관련된 생명윤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7].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은 그룹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자가 정한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생각과 경험의 배경에 대한 맥락적 이해, 연구 주제에 대한 해석적인 통찰력을 갖게 한다. 최소 3개 이상의 그룹을 구성하여 단기간에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포커스 그룹 선행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수와 카데바 실습시간이 4시간으로 매우 적거나[7], 총 몇 시간의 카데바 실습을 경험한 사례 인지조차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였다[8]. 이러한 배경에서 간호학생의 총 4일간의 카데바 실습 경험을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맞춤형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 운영방안과 생명 및 간호윤리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카데바 실습교육 기간 동안 간호학생의 카데바 실습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본질을 탐색하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 방법으로 실습 경험에 대한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과 경험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인터뷰 진행 중에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학생을 위한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카데바 실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도출하였다. 대상자의 개인적 속성보다 취합된 경험들 간의 공통된 속성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11]을 사용하여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였다.

### 2.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강원도 W시의 1학년 2학기에 해부학 과목을 수강한 이후 동계방학기간에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총 40명이다.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의 일정은 중국 상해의 S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의뢰하여 운영하였으며, 1일차는 앞면 몸통과 앞면 상지, 2일차는 뒷면 몸통과 앞면 하지, 3일차는 뒷면 상지와 하지, 4일차는 내장기관과 뇌를 해부 및 관찰하도록 구성되었다. 간호학 전공에 입문하기 시작하는 2학년 진급 직전의 참여자들이 그룹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경험 공유와 내실화 과정을 거쳐 카데바 실습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3 자료 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20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10명씩 총 4그룹으로 구성하여 총 4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였다. 그룹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해서 편안하고 생산적인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므로 참여자의 특성 즉 동일한 반 학생들끼리 같은 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녹음된 내용을 필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터뷰 질문 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2인의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다. 인터뷰 내용은 개방형으로 코딩하여 중심 주제를 범주화시키면서 분석하였다. 각 인터뷰 소요시간은 9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수집 과정은 1차 인터뷰 후 분석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시작 질문: '인터뷰 전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 도입 질문: '인체 해부 관찰 경험 전에 카데바 실습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 전환 질문: '인체 해부 관찰하면서 느낀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주요 질문: '카데바 실습 중에 어떠한 경험을 하셨나요.', '카데바 실습의 강점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카데바 실습을 하고 나서 본인에게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마무리 질문: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혹시 빠진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또한 이 외에도 추가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질적 간호연구방법론 수강과 질적연구 논문 작성 워크숍 참석 경험이 있다. 질적 자료 분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질적 연구 논문을 다수 게재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교수 2인에게 분석의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과 확인의 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과정은 대상자의 면담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해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접근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1]. 1단계는 연구자들이 필사된 기술들을 반복하여 정독하였다. 2단계는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카데바 실습 경험과 관련된 의미들을 도출하였다. 3단계는 의미(formulated meaning) 있는 진술로부터 형성된 의미를 도출해 내었다. 4단계에서 의미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39개의 형성된 의미를 확인하고 원자료로 돌아가서 원자료와의 일치 및 모순 여부를 검토하였다. 5단계는 39개의 형성된 의미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면서 총 12개의 주제(theme)와 6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을 정하여 3가지로 범주화하였다. 6단계는 도출된 결과들을 카데바 실습 경험에 통합하여 주제에 따라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으며, 명확한 문장으로 기술하였다. 7단계는 참여자들에게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연구자들이 기술한 내용과 분석결과가 카데바 실습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함에 있어 Guba와 Lincoln(1989)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중립성, 일관성에 근거하였다[12].

### 2.5 연구 윤리

참여자에게 모든 인터뷰는 녹음되어 진행됨을 설명하였고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참여하기를 동의한 후 서면화된 동의서를 받았으며, 비밀 유지와 익명성을 설명하였고, 인터뷰 도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 3. 연구 결과

Table 1과 같이, 자료 분석결과 불안, 성찰, 성장이라는 3개의 범주와 걱정, 직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 시

신스승의 가르침, 전진, 다시없을 값진 경험이라는 6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 12개의 주제(themes)가 도출되었다.

**Table 1. The experiences of human body anatomy observations using the Cadaver in the nursing students**

Category	Theme clusters	Themes
Unrest	Worry	The challenge to strangeness
		Fear of starting line
	Confrontation	Encounter with death
		Face up to reality
Reflection	The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The value of life My precious body
	Teaching of the body teacher	Thanks and memorial Contemplation of the body donation
		Step forward
	A valuable experience that will never be again	

### 3.1 범주: 불안

#### 3.1.1 주제모음: 걱정

카테바 실습을 하게 된 간호학생들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는 한편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잘 해낼 수 있을지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1.1.1 주제: 낯설음에 대한 도전

“처음 접하는 냄새인데 냄새가 심하다고 들어서 걱정했어요.”(참여자 37)

“아무래도 처음에는 긴장, 걱정이 많이 되었죠.”(참여자 31)

“많이 부패되어 있는 시신을 생각하고 내가 끝까지 잘 견디고 해낼 수 있을까...”(참여자 17)

“시체를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징그러운 것 같았고, 궁금하기도 했다.”(참여자 12)

“병원 실습도 나가보지 못한 상태에서의 첫 번째로 하는 직접적인 전공활동이니 떨렸다.”(참여자 11)

##### 3.1.1.2 주제: 출발선의 두려움

“시신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직접 시신의 내부를 볼 수 있을지 많이 두렵고 무서웠다.”(참여자 37)

“처음에는 시신의 피부에 내 손이 닿는다는 것이 무척 겁나고 두려웠다.”(참여자 36)

“처음에는 두려우면서 설레기도 하였다. 의외로 시신을 마주했을 때 마네징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참여자 20)

#### 3.1.2 주제모음: 직면

언제나 무거운 주제인 죽음을 마주하며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정작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며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3.1.2.1 주제: 죽음과의 조우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참여자 9)

“시신이 어쩔 수 없이 함부로 대해지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참여자 26)

##### 3.1.2.2 주제: 현실 직시

“처음에는 시신을 마주한다는 게 두렵고, 무서웠지만 막상 시작하니 무서움보다는 신기함과 경이로움, 호기심이 더 크게 생겼다.”(참여자 22)

### 3.2 범주: 성찰

#### 3.2.1 주제모음: 삶과 죽음의 경계선

막연한 상상이 아닌 시신을 직접 대면함과 동시에 물려온 당혹감도 있었지만 죽음의 측면에서 바라본 생명과 나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 3.2.1.1 주제: 생명의 가치

“실습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과 신비함을 느끼고 그 소중함에 대해 생각했다.”(참여자 7)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던 4일이었다.”(참여자 37)

“사람의 몸이 매우 정교하고 세밀한 것이 매우 매력적이었다.”(참여자 20)

“‘인체의 신비’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참여자 10)

##### 3.2.1.2 주제: 소중한 내 몸

“인간은 강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 나는 내 몸 관리를 시작으로 마음도 강해져야겠다는 다짐도 하였다.”(참여자 39)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참여자 35)

### 3.2.2 주제모음: 시신스승의 가르침

사후의 자신의 몸을 남에게 기꺼이 내어준 카데바는 자기 몸을 희생하며 해부학을 가르치기에 시신 스승으로 불렸다고 한다. 시신 스승의 영향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족 및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언제인가 나에게도 다가올 죽음이라는 숙명에 대해 삶의 일부로서의 죽음을 인식했다.

#### 3.2.2.1 주제: 감사와 추모

“시신을 기증해주신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실습했다.”(참여자 40)

“시신기증한 분들의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4일간 열심히 했다.”(참여자 39)

“사실 죽었다고 해도 나체로 자신의 몸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정말 감사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닌 만큼 더 더욱 감사했다.”(참여자 34)

“아무래도 시신이 많이 훼손되는 만큼 기증이 쉬운 일이 아닌데 매일 묵념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참여자 4)

#### 3.2.2.2 주제: 시신 기증에 대한 숙고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참여자 18)

“시신 기증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증이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시신 기증일 경우에는 그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시신 기증에 대해서 나만의 생각을 정립해보길 원한다.”(참여자 7)

“기증이라는 힘든 선택을 하신 만큼 그분들의 기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했지만, 아직 내가 기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참여자 4)

## 3.3 범주: 성장

### 3.3.1 주제모음: 전진

실습 전에 가졌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번 실습이 해부학을 충분히 배우고 익힐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실습에 흥미를 보이고 점점 더 몰두

하게 되었다.

#### 3.3.1.1 주제: 시각과 촉각에서 오는 흥미로움

“시신도 처음보고, 해부 관찰도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 실습이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었다.”(참여자 37)

“장기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다니 너무 신기했다.”(참여자 40)

“책을 활용한 이론적이고 수동적이었던 여러 수업과는 달리 카데바 실습은 전적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며 입체적인 구상을 가능하게 했다.”(참여자 35)

“해부학 교수님이 가위로 갈비뼈를 자를 때 ‘우둑’하는 소리 때문에 소름이 조금 들었지만, 내장기관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니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다.”(참여자 31)

#### 3.3.1.2 주제: 꿈을 위한 몰입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부에 자신감이 생겼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배웠고 그럴수록 내 꿈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참여자 40)

“시간이 지날수록 해부를 보고 싶지 않던 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구나 생각하고,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참여자 36)

### 3.3.2 주제모음: 다시없을 값진 경험

의미 있고 값진 경험으로 간호사를 꿈꾸는데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알게 되었다.

#### 3.3.2.1 주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성취감

“이번 실습을 마치니 내 꿈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참여자 40)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용기를 얻어 자아성취감 또한 올라갔다.”(참여자 35)

“어설프게 외우기만 했던 지난 이론 수업에 비해 이번 실습은 지식의 기반을 다진 것 같고, 오래 기억될 것 같다.”(참여자 33)

“카데바 실습도 해봤는데 이런 것쯤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취업 후 사회생활을 할 때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카데바도 해봤는데, 이걸 못해내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참여자 31)

“간호사가 되어 사고로 인해 장기나 뼈가 보이는 환자를 만나도 더 이상 무섭고 두렵지는 않을 것 같다.”(참여자 7)

### 3.3.2.2 주제: 미래를 향한 동기부여

“수술실 간호사를 해볼까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참여자 29)

“시체 부검 분야에 관심이 생겨 이런 쪽으로 진로를 알아보고 싶어졌다.”(참여자 34)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근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참여자 13)

“이번 경험을 임상에서의 실제 상황에 대입해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래를 계획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참여자 11)

## 4. 논의

2학년 진급 직전의 간호학생의 카테바를 통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은 불안, 성찰, 성장이라는 3개의 범주와 걱정, 직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 시신스승의 가르침, 진진, 다시없을 값진 경험이라는 6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 등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경험에 기대와 설렘도 있는 한편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카테바 실습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죽음과 마주하며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간호학생의 인터뷰 분석 연구에서도 카테바 해부 실습에 대한 부담감[8]과 양가감정[7]이 존재하였으며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없었으나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았다고 ‘근본적 질문과 반추’로 의미를 도출한 선행연구도 있다[9]. 이러한 학생의 불안과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테바 실습 전 해부학 사전학습을 하도록 미리 안내하고 실습 일정과 세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지하는 효과적인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습 중에 나타나는 복잡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일임을 설명하고 다양한 감정들로 많이 힘든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서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독일 의대생 대상 연구에서 64%의 학생들이 첫 해부학 수업 당일에 심리적 지원을 받기를 선호했으며, 75%는 스트레스 관리 및 해부학 학습 전략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성별과 간이증상

평가척도(Brief Symptom Inventory) 수준이 심리·사회적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3,14]. 선행연구에서 간호학생 1,2학년에게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는 적어 있는 질문에 절반 정도의 학생이 전혀 없거나 드물다고 응답했다[15]. 자신이 죽음에 대한 깊은 감정에 직면할 수 있어야 죽어가는 환자를 미래에 돌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카테바 실습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도울 수 있으며, 실습 전·후에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죽음이 넓은 의미에서 생명의 한 과정임을 인식하도록 하여 전인간호(holistic nursing)를 제공하는 간호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성찰’ 범주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과 ‘시신스승의 가르침’이라는 주제 모음으로 구성되었다. ‘생명의 가치’, ‘소중한 내 몸’이라는 주제는 ‘인체가 대단한 작품임을 깨달음[7]’, ‘소중한 나의 몸과 삶[9]’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학생들이 신체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감사와 추모’, ‘시신기증에 대한 숙고’라는 주제는 시신 기증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을 보였지만, 카테바 실습을 계기로 장기 및 시신 기증에 대해 곰곰이 잘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대생 대상 연구에서 ‘교사로서의 시신(body as teacher)’ 접근법이 ‘첫 환자로서의 시신(body as first patient)’ 접근법보다 인체와 미래 환자에 대한 존중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촉진하는데 더 효과적이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16]. 따라서 카테바 실습 프로그램에 가상의 죽음체험을 포함하여 ‘웰다잉(well-dying)’ 죽음준비 교육을 실시한다면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만들어 주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성장’ 범주에서는 ‘진진과 ‘다시없을 값진 경험’이라는 주제 모음이 도출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값진 것은 배움’, ‘간호인이 되어 감을 느낌’이라는 범주[7]와 ‘간호사가 되어감’이라는 주제모음[8], ‘간호사로의 날갯짓’이라는 주제모음 하에 ‘해냈다는 벅차오름’, ‘비전으로 비상하기’라는 주제로 도출된 것과 일맥상통했다[9]. 간호학생들은 자신이 집중하여 결국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간호학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자신과 의학·

간호학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는 보고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5,17].

## 5. 결론 및 제언

간호학생이 경험한 카데바 실습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설렘도 있는 한편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카데바 실습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죽음과 마주하며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으며 장기나 시신기증에 대해서도 숙고하였다. 간호학생들이 신체의 신비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겨야겠다고 다짐했다. 실습에 흥미를 보이고 점점 더 몰두하게 되었으며 처음 마주하게 된 의미 있고 값진 경험으로 간호사를 꿈꾸는데 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더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표집과정에서 일부 지역 간호학생을 편의 표집 하였으므로 다양한 카데바 실습환경과 프로그램에서의 실습 경험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참여자를 달리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과 맞춤형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생명·간호윤리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음에 의의를 가진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카데바 실습 오리엔테이션과 감정 대처법 제시, 가상 죽음체험과 같은 죽음준비 프로그램을 통해 생명과 죽음, 인간의 존엄성에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간호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간 존재와 삶 그리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체험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질적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M. R. Lee. (2015). A Study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s to death in nursing students after anatomy cadaver practi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5(4), 287-295.  
DOI : 10.14257/AJMAHS.2015.08.29
- [2] D. I. Kim. (2015).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for nursing students: in scope of nursing students and professo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28(2), 119-125.  
DOI : 10.11637/kjpa.2015.28.2.119
- [3] J. H. Sim. (2009). Learning of instructional media on anatomy classes in a nursing colleg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1(1), 51-58.
- [4] H. H. Yoo, C. H. Song, E. H. Han & H. T. Kim. (2014).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f cadaver dissection for the para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27(3), 145-154.  
DOI : 10.11637/kjpa.2014.27.3.145
- [5] Y. S. Yang. (2020). Effects of convergence cadaver practi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3), 38-47.  
DOI : 10.22156/CS4SMB.2020.10.03.038
- [6] G. Y. Choi, J. M. Kim, J. H. Seo & H. J. Sohn. (2009). Becoming a doctor through learning anatomy-nar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22(3), 213-224.
- [7] H. L. Kang & Y. R. Lee. (2017). The experiences of human body anatomy observations using the cadaver model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233-242.  
DOI : 10.14400/JDC.2017.15.4.233
- [8] C. S. Park. (2018). The meaning of death.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5), 589-597.  
DOI : 10.21742/AJMAHS.2018.05.53
- [9] M. H. Kim & M. J. Chae. (2012). A Study of student nurses' observation experiences of human body dissec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4(2), 94-102.  
DOI : 10.7586/jkbns.2012.14.2.94
- [10] C. Y. Jeong & Y. S. Seo. (2017).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journals for cadaver practice experienc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8), 257-264.  
DOI : 10.5762/KAIS.2017.18.8.257
- [11] P. F. Colaizzi.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2] E. Guba & Y. Lincoln.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Sage.
- [13] A. Boeckers, A. Brinkmann, L. Jerg-Bretzke, C.

Lamp, H. C. Traue & T. M. Boeckers. (2010). How can we deal with mental distress in the dissection room? an evaluation of the need for psychological support. *Annals of Anatomy*, 192(6), 366-372.  
DOI : 10.1016/j.aanat.2010.08.002

- [14] S. H. Kotzé & C. G. Mole. (2013). Talking about death: Implementing peer discussion as a coping mechanism to overcome fears about dissection, death, and dying. *Anatomical Sciences Education*, 6(3), 191-198.  
DOI : 10.1002/ase.1332
- [15] H. J. Lee. (2013).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9(2), 88-95.  
DOI : 10.14370/jewnr.2013.19.2.88
- [16] M. Bohl, P. Bosch, & S. Hildebrandt. (2011). Medical students' perceptions of the body donor as a "First Patient" or "Teacher": A pilot study, *Anatomical Sciences Education*, 4(4), 181-242.  
DOI : 10.1002/ase.231
- [17] H. J. Chang, H. J. Kim, I. J. Rhyu, Y. M. Lee & C. S. Uhm. (2018). Emotional experiences of medical students during cadaver dissection and the role of memorial ceremonies: a qualitative study. *BMC Medical Education*, 18(1), 1-7.  
DOI : 10.1186/s12909-018-1358-0

이 현 정(Hyun-Jung Lee)

[종신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석사)
- 2011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기본간호학  
· E-Mail : hjlee@kduniv.ac.kr

이 상 복(Sang-Bok Lee)

[정회원]



- 1988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간호, 모유수유  
· E-Mail : lee2000sb@kduniv.ac.kr